

‘아름다운 어촌 100개소’ 선정

Fresh어촌 · Clean운동으로 어촌이미지 제고 어촌관광 활성화로 국민 여가생활에 이바지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마을(사진) 등 아름다운 어촌 10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100개소는 전남이 30개소로 제일 많으며, 강원 경남이 각각 14, 충남 9, 전북 경북 제주가 각각 7, 부산 4, 울산 경기도 각각 3, 인천 2개소 등이다. (3면에 아름다운 어촌 100개소 상보)

해양수산부는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 및 고속도로 건

설 등으로 어촌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가족단위로 어촌과 바다를 체험하는 관광수요의 증대에 부응하여 관광자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어촌을 선별하여 어촌관광 대중화를 통한 어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국 1천800여개 어촌을 대상으로 지역 고유의 경관과 특산물, 어업체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어촌을 선정하였다.

아름다운 어촌은 앞으로 매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금번에 누락된 어촌은 내년 신규마을로 교체 선정하는 한편, 금번에 선정된 어촌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명의의 아름다운 어촌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며, 바다·어촌이 주는 상쾌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어촌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시·군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네트워크화하며, ‘아름다운 어촌 100선’ 책자발간, 이 달의 어촌 포스터 제작·배포 등 다양한 매체로 적극 홍보하고, 어촌 이미지 향상을 위해 Fresh어촌·Clean바다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경진대회 등으로 어촌지역 마을의 환경정비 노력을 촉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명실상부한 아름다운 어촌을 만들어 어촌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에도 이미 매년 수산예산의 60% 이상을 이와같은 분야에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조직, 법령, 제도, 정책, 예산구조 등 일대 수산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남해군 삼동면 물건마을의 아름다운 어촌 100개소 중 하나인 물건마을의 풍경이다.

‘수산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건의

손정식 회장, 대통령당선인과 농어민단체 대표 간담회서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2월22일 대통령당선인과 농어민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수산인프라구축과 SOC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어촌과 어항 그리고 어장을 일체로 하는 종합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조직, 법령, 제도, 정책, 예산구조 등 수산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정식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항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어항이 도시와 어촌의 만남의 장, 국제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해안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강조했다.

어촌어항의 현안에 대한 손정식 회장의 건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어업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수산정책의 일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2. 어장의 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로 어업생산량, 어업인구, 어업종사자수의 격감과 어가소득의 상대적 저위는 식량산업으로서의 수산업 위치를 날로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3. 더욱이 어업종사자의 구성비를 보면 2001년말 현재, 50세 이상이 60.3%, 여성종사자가 48.2%로서 노령화,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4. 이와같은 탈어촌 현상으로 어촌은 공동화, 황폐화가 심히 우려됩니다.
5. 앞으로의 수산정책 방향은 증산시책이나 지원수단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수

- 산인프라구축과 SOC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어촌과 어항 그리고 어장을 일체로 하는 종합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시수준의 문화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활력 있고 쾌적한 어촌정주권 조성을 위한 ‘어촌의 공원화’와 어촌경제권의 중심지이며 어촌개발의 핵인 어항을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하여 어촌관광, 휴양, 레저 등 어촌소득원을 개발해 준다면 ‘돌아오는 어촌’으로 환류할 것입니다.
6. 어항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도시와 어촌의 만남의 장’, ‘국제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해안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참고로 일본같은 경우

제10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許成寬 씨



정부는 2월 27일 제10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허성관씨(동아대학교 교수, 56세)를 임명했다. 경남 마산출신인 허성관 장관은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마산이 고향이지만 초·중·고를 광주에서 졸업하고 대학은 부산에서 나온 특이한 경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허 장관은 지난 대선때 부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교수그룹을 이끌기도 했다.

□ 주요약력
△광주제일고, 동아대 상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동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미국 뉴욕주립대 방문교수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

2월25일 역사적인 노무현 정부가 탄생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는 슬로건을 내건 노무현 정부는 서민적인 품모와 그 어느 정권보다 가장 강력한 개혁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적잖을 게 사실이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항도 부산에서 정치적 입지를 굳혔고, 이미 해양수산부장관도 역임했던 터라 어업인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는 그 누구와 비교할 바 없을 듯하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3대 국정지표로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할 국정원리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4가지이다.

국정 전반에 걸쳐 면면히 흐르는 기본적인 의지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천명과 다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어업인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동안 어촌어항부분과 관련하여 다기능 어항개발 등을 통해 어촌관광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거두절미하고 여기에는 노대통령이 보았을 때 현재 우리의 어촌은 지금같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획기적인 소득 향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더욱이 새 정부가 가장 앞서 내세우는 정의로운 분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서민들의 소득향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듯싶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항 어촌은 1995년을 고비로 급격히 쇠퇴해 왔다. 생산량, 어가소득은 크게 줄었으며, 이에 반해 어가부채는 거의 배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1990년대 비어업가구는 3분의1, 어업종사자는 무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50세 이상 어업종사자 비율이 60%, 이 가운데 여성 인력이 48% 이상을 차지하는 등 어촌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3천165개의 섬, 1만1천542km의 해안선, 1천851개의 항포구를 가진 천혜의 조건이 말 그대로 무색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러한 현실을 직시, 우선 어가소득부터 향상시켜야 되겠으며, 그 방법으로 다기능 어항개발 등을 통한 어촌관광 기반 확충은 일단 올바른 가닥을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문제는 다기능 어항개발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개발 의지와 투자없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적 상황에 봉착한다.

전시효과를 감안했을 때 어항부문은 지금까지 모든 정부의 정책적 투자에서 늘 마지막 순위를 차지해 왔었다. 산업부문의 서민층이라고 스스로 자괴하는 말을 나눌 정도이다.

그러므로 다기능 어항개발을 통한 어촌관광 기반조성은 일거양득,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첩경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소외된 어업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동시에 실질적인 소득향상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업인 모두가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거는 것도 모두 이런 뼈아픈 현실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까닭이다.

다만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매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애드벌룬을 높이 높이 띄워놓고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1회성 정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점이다.

사실 앞서 강조한 모든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어항개발은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미룰 수가 없다.

이를 미루어 다른 분야에 투자하면 당장의 전시효과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훨씬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에 크나큰 기대와 함께 축하를 드리는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어업인도 적지 않음을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다.

노무현 정부에 바란다

동

정

대통령당선인과의 간담회에 참석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2월10일 제8회 충청포럼 '21세기 한미관계'에 참석, 14일에는 섬유센터에서 열린 현우회중앙회 주최 '북한 핵과 한미관계'세미나에 참석, 17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밝은사회서울중앙클럽 정기월례회의에 참석, 19일에는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정기이사회에 참석, 20일에는 해성회 정기월례회에 참석, 22일에는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당선인과의 농어민단체대표 간담회'에 참석.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은 2월4일 조업중 실종된 김장석씨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금을 전달, 6일에는 수온급강하로 양식어류가 집단폐사한 태안군 고남면의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고 어업인을 위로, 18일부터 22일까지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

▲고계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2월3일 구례 송원리조트에서 금광한마음대회를 개최, 5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분과 위원회의에 참석, 13일에는 범죄예방전문위원 정기총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2월6일 자유총연맹 임원간담회에 참석, 7일에는 전경련 정기총회에 참석, 18일에는 현정회 운영위원

회에 참석, 21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26일에는 자유총연맹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2월7일 경영자협회 금요초찬연수회에 참석, 11일에는 광주 서석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 13일에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남도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 18일에는 한국항만협회 이사회에 참석, 21일에는 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경생보호위원회에 참석.

▲황규주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22일 전남경제인협회 회장에 취임, 24일에는 거금연육교 개통식에 참석, 25일에는 고흥 지축대교 개통식에 참석, 2월6일에는 전남경제인협회 이사회를 주재, 12일에는 건설협회 주최 제주도 산업시찰에 참석, 21일에는 전남경제인협회 회장단회의를 주재.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2월10일 한국항만협회 회장단회의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5일 광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회의에 참석, 11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에 참석, 12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에 참석, 19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이사회의를 주재, 27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총회에 참석, 28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정기총회를 개최.

▲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환범)은 2월 1일 정해용 전부이사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안익성씨는 최근 주식회사상도엔지니어링 상무이사에 취임했다.

외 속

▲피경만씨(주식회사신화엔지니어링 이사)의 장남 정옥균은 지난 2월 23일(일) 오후 12시30분 청기와예식홀에서 화족을 밝혔다.

▲박원길씨(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장)의 장남 종서균은 지난 2월 15일(토) 오후 1시 30분 강남웨딩문화원에서 화족을 밝혔다.

▲노승만씨(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과장)의 장남 형준균은 지난 2월 15일(토) 오후 1시 고대교우회관에서 화족을 밝혔다.

이 비 남 부

▲황재수씨(수우회 회장)

안 내

제16기 정기총회 개최 3월11일 건설회관에서

한국어항협회는 오는 3월11일 오전11시 건설회관 3층중회의실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 200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2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 시상과 함께 특별행사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공연 및 어항어촌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인 사

▲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환범)은 2월 1일 정해용 전부이사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전국어항협회를 전국어항어장협회(가칭)로 日, 어항어장관계중앙단체 재편방향 나와

일본 전국어항협회는 전국어항어장협회(가칭)로 개명하여 어장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하기로 했다.

오는 5월말에 있을 총회에서 업무내용, 회비, 정관변경 등에 대해서 회원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는 대로 새로운 협회로 발족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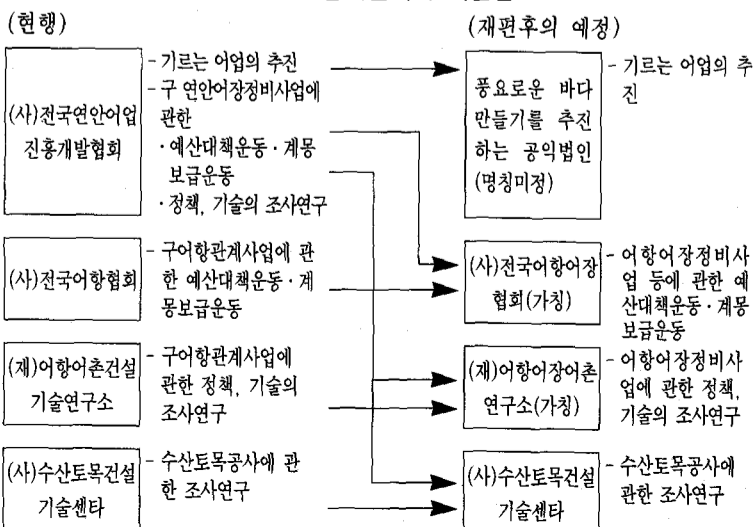
도도부현의 지방어항협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의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래의 어항협회와

어장관련 협회 두 단체가 당도도부현의 회원으로 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어항과 어장의 예산·조

직·법제도 등의 일체화 추세에 따른 단체의 위상을 검토한 결과, 최근 단체의 재편 방향이 정리되어 구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어항어장관계단체의 재편안



'한국어항협회 15년사' '안내 팸플릿' 발간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협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장래의 좌표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키 위한 한국어항협회 15년사와 협회 업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 팸플릿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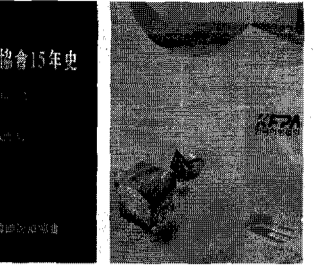
이번에 발간된 15년사는 1987년 6월 사단법인 출범에서부터 2002년까지의 발자취를 화보로 편집하고 그동안의 발전 과정을 요약 정리하여 5편, 345페이지로 구성됐다.

손정식 회장은 발간사에서 "협회가 무(無)에서 창조되어 오늘날 수산계에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고도의 전략과 투혼이 서려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순탄하지 않았던 그간의 협회 역사는 오로지 우리나라 어항계

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앞만 보며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던 투지의 행로였으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온 정성 그 자체"라고 회고하고 있다.

이와함께 협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정체하지 않고 매일 발전하는 협회, 강한 협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까지 매진해 왔듯이 앞으로도 더더욱 씩씩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회장은 특히 어항회관 건립기금을 모금하여 자체 사무실을 구입하고, 어항법을 개정하여 협회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정부로



부터 경상경비를 확보하여 협회의 존립기반을 굳혀나온 것과 외국과의 기술교류 강화와 조사연구사업의 활성화, 어항청소선 관리운영 및 바다환경정화사업 등으로 협회 업무영역 확대와 위상을 제고시켜 나온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또 협회 활동현황을 사진위주로 편집, 36페이지의 협회 안내팸플릿을 발간했다.

한국어항협회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

해양수산부 어항회관 건립 적극 지원키로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2월 6일 해양수산부에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고했다.

유정석 해양수산부차관은 이날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어항회관 건립을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또 해양환경정화사업과 관련, 그 동안 협회에서는 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 말하고 "현재 건조 중인 90톤급 다기능 정화선을 한국어항협회에서 관리 운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침체어망인 양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선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협회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유정석 차관은 또 정부와 산하단체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라고 강조하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연계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어업경쟁력 향상, 어촌관광, 어업의 소득 증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 정부와 협회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협회의 업무추진 건립을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손정식 회장은 이날 "어항

정보 지식센터 및 어촌어항의 구심체 총본산으로서의 협회"라는 협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항정보 지식 기반의 확립 △어촌어항의 문화 관광 진흥에 기여 △국내 최고의 기술경쟁력 구축 △재정기반 확립 등 발전목표에 대해 보고했다.

해양수산부 갯벌 보전제도 대폭 강화

연안습지인 갯벌의 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순천만과 강진만 등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며 이들 습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세계습지의 날(2월2일, World Wetlands Day)을 맞아 습지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보호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부터 무안 진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두리해안사고 제주문섬일대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도 갯벌보전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순천만과 강진만 갯벌 등 습지보호지역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계습지의 날을 계기로 연안습지인 갯벌의 보전을 위해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관리사업도 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습지보호 강화의사를 밝혔다.

어항청소선 소식

3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 명	월 일	지 역(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3.10~15 3.24~29	군산연안 선유도	최동립	(휴대폰) 011-247-5592
어항 902호	3.10~29	수리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어항 903호	3.10~15 3.24~29	녹동 동송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어항 904호	3.3~15	용진	박주종	(휴대폰) 011-232-5596
어항 905호	3.3~8 3.10~29	통영 수리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어항 906호	3.3~8 3.17~22	갑포 죽변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어항 907호	3.10~29	수리	최일선	(휴대폰) 016-661-5597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깨끗이 가꾸어 바다! 물레버린 밧줄 하나 풍요로운 바다목장 바다생명 단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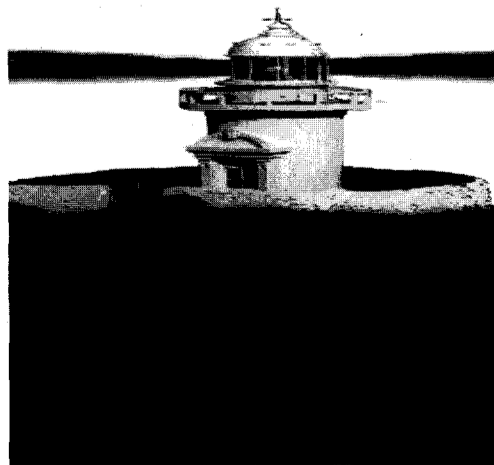
아름다운 어촌 100개소

시·도	시·군(연락처)	세부 위치	어촌명		비고	
			마을명	어촌계(연락처)		
합계	47		100	110	16개 어항 22개 섬	
부산시 (051)	2		4	4		
	기장군 (720-5502)	기장읍 시랑리	공수	공수(722-8724)	대변항	
		기장읍 대변리	대변	대변(721-8888)		
		일광면 신평리	신평	신평(727-0359)		
서구(240-4501)	압남동	송도	압남(243-5201)			
인천시 (032)	1		2	2		
	옹진군 (880-2223)	백령면 연화리	연화	연지(836-1129)	섬	
덕적면 서포리		서포	진리(831-2932)	섬		
울산시 (052)	3		3	4		
	동구(230-9375)	일산동	일산	일산(251-2215)	정자항	
		북구(219-7474)	강동동	정자당사(295-3900) 당사(298-3560)		
		울주군 (229-7381)	서생면 대송리	대송		대송(239-5836)
경기도 (031)	3		3	5		
	안산시 (481-2333)	선감동·대부북동	대부도	선감(886-4649) 탄도(883-9954) 종현동(886-0194)	섬	
		평택시 (659-4437)	현덕면 권관리	권관	권관(681-8380)	
		화성시 (369-2334)	서신면 제부리	제부	제부리(357-5064)	
강원도 (033)	6		14	14		
	강릉시 (640-5194)	주문진읍 주문2리	주문	주문리(011-771-4346)		
		동해시 (530-2531)	추암동 대진동	추암 대진		추암(521-4246) 대진(534-3221)
	속초시 (639-2469)	대포동 외옹치리	외옹치	외옹치리(635-2151)	대포항	
		장사동	사진	장사동(632-9796)		
		동명동	동명	동명동(633-6790)		
	삼척시 (570-3544)	대포동	대포	대포(635-2499)		
		갈천동	후진	후진(573-0652)		
		근덕면 용화리	용화	용화(572-4142)		
	고성군 (680-3411)	근덕면 장호리	장호	장호리(572-4227)	장호항	
현내면 초도리		초도	초도(682-0324)	남애항		
양양군 (670-2413)		현남면 남애2리	남애		남애2리(671-7746)	
충남 (041)	4		9	9		
	서산시 (660-3412)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간월도	간월도(663-7751)	남당항	
		서천군 (950-4138)	서천군 서면 마량리	마량		마량(952-3052)
보령시 (930-3411)		신흥동 웅천읍 판당리	신흥 무창포	신흥수협(931-3350) 판당(936-3510)		
태안군 (670-2411)	서부면 남당리	남당	남당(634-2500)	안면도(섬)		
	안면읍 승언리	승언	안면수협(673-9900)			
	원북면 방갈리	방갈	방갈(674-7111)			
당진군 (350-3224)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가곡(353-6104)			
	석문면 교로리	왜목	교로(354-1128)			
	전북 (063)	3			7	9
군산시 (450-4412)		옥도면 선유도리	선유도	선유도(466-2420)	구시포항	
		심원면 하전리	하전	하전(019-636-5486)		
	고창군 (560-2142)	해리면 동호리	해리	해리(011-677-6455)		
부안군 (580-4369)	상하면 자룡리	구시포	구시포(562-1597)	섬		
	부안면 봉암리	죽도	죽도(563-8531)			
	변산면 격포리	격포	격포(582-8747)			
전남 (061)	13		30	33		
	목포시 (270-8327)	달동	외달도	달리(262-3541)	섬	
		여수시 (690-2439)	돌산읍 울림리	임포	임포(644-6152)	섬
삼산면 서도리			장촌	서도리(666-8086)		
화양면 장수리	장문	장문(682-6577)				

시·도	시·군(연락처)	세부 위치	어촌명		비고	
			마을명	어촌계(연락처)		
경북 (054)	3		7	7		
	포항시 (245-6292)	남구 대보면 대보2리	대보	대보2리(284-9541)	대보항	
		북구 송라면 화진1리	화진	화진1리(243-6118)		
		영덕읍 창포리	창포	창포리(011-819-9128)		
	영덕군 (730-6292)	영해면 대진리	대진	대진1리(011-786-9128)	대진항	
		서면 태하리	태하	태하(791-5541)	섬	
		울릉군 (790-6292)	서면 남양리	남양	남양(791-4949)	남양항(섬)
	경남 (055)	6		14	14	
		사천시 (830-4242)	대방동	대방	대방(832-7178)	물건항
			용현면 선진리	선진	선진(854-4747)	
삼동면 물건리	물건		물건(867-0997)			
남해군 (860-3228)	삼주면 상주리	상주	상주(862-6256)			
	삼동면 지족리	지족	지족(867-0033)			
	설천면 문항리	문항	문항(862-7266)			
고성군 (670-2341)	하이면 덕명리	제전	하이(834-6223)	섬		
	마산시 (240-2191)	구산면 구북	구북		구북(221-6057)	
	통영시 (640-5741)	한산면 매죽리	소매물도		소매물(643-7903)	
하동군 (880-2411)	육지면 서산리	유동	유동(642-6239)	육지항(섬)		
	금남면 대도리	대도	대도(883-5745)	섬		
	거제시 (639-3411)	동부면 화동리	화동	화동(011-869-1045)		
제주도 (064)	3		7	9		
	서귀포시 (735-3414)	보목동	보목	보목동(733-1077)	섬	
		성산읍 오조리	오조	오조리(784-2516)		
성산읍 신양리		신양	신양(782-2970)			
북제주군 (741-0412)	한림읍 비양리	비양도	비양(796-8466)	섬		
	애월읍 구염리	구염	구염(713-3349)			
	한경면 고산리	고산	고산(773-0136)			
우도면 일원	우도	서광(783-0211) 천진(782-0135)	섬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 수협조합
수협공제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이 안전지대로 도와드립니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소금으로 이 닦지 마세요

건강·하계·삼시·다

예로부터 치아는 오복(五福) 중의 하나라고 했다.

이러한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TV를 통해 '허준' 또는 '이제마'에 관한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한의학이나 사상의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함께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여러 가지 민간 요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그에 관한 내용들이 신문이나 잡지, TV를 통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 최근 소금치약이나 죽염치약 등 소금을 성분으로 한 치약들이 많이 시판되고 있다.

어릴적 어른들이 소금으로 양치하는 모습을 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또 굳이 유년시절이 아니더라도 대중목욕탕에 가면 치약 옆에 항상 소금통이 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소금물로 입안을 헹가래하면 감기를 예방하거나 목이 아플 때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다면 소금으로 양치하면 정말 치아와 구강건강에 좋을까?

대부분 소금으로 양치를 할 때 굵은 소금을 이용한다. 실제로 굵은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도 굵은 소금이 탁월한 연마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치약에는 매우 미세한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다. 치약으로 동전을 닦으면 광이 나는 이유도 이 연마제에 의해 표면이 곱게 닦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금의 입자는 곱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자칫 치아표면을 미세하게 갈아내서 치아가 시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위의 치아의 면이 잘 닦이지 않게 돼, 오히려 치약으로 치아를 닦을 때 보다 치아의 건강에 나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금으로 이 닦기를 원한다면 먼저 치약으로 이를 닦은 후 소금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가래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 또 치주염(풍치)에 소금이 좋다고 생각해 소금양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시 실제로 닦아보면 소금의 높은 농도로 구강내에서 삼투압을 유발, 치아와 잇몸사이의 조직액 등을 끌어내 잇몸의 붓기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용 역시 일시적인 것이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스케일링이나 잇몸치료를 통해 치주염의 원인이 되는 치석이나 염증조직을 제거해야만 건강한 구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람은 소금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 효용성을 너무 맹신해 모든 곳에 이용하려 드는 것도 문제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75)

第5章 콘크리트

5.4.2 콘크리트의 운반·타설

(1) 운반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의 분리, 기타의 원인으로 콘크리트의 품질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콘크리트 비비기부터 타설완공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바깥기온이 25℃를 초과할 때 1.5시간, 25℃이하인 때는 2시간이 넘지 않게 하고, 조금이라도 굳어진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현장까지의 운반은 주로 콘크리트운반차를 사용하고 현장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버킷, 콘크리트 타워, 손수레, 벨트컨베이어, 슈트 등의 운반기계를 사용한다.

① 운반차

콘크리트 운반차에서 트럭믹서, 트럭에지테이터, 덤프트럭, 호퍼(hopper) 적재 트럭 등이 있으므로 짐부리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에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춘 것을 사용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운반은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다. 콘크리트 펌프는 운송관의 배관이 되면 적조물 내부, 터널, 잔교위, 수중 등 좁은 장소나 높은 장소에서도 운반이 가능하다.

콘크리트는 운반에 적합한 워커빌리티가 있고 시공시와 경화후에 소정의 품질을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5.4.1의 값을 표준으로 하되 작업에 적합한

범위에서 가급적 작은 것으로 하고,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경우에는 유동화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이들 계획이 부적당하면 폐색사고나 시공능률의 저하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운송관의 직경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조골재의 최대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수송관의 직경은 공칭치수 100A(4B) 및 125A(5B), 150A(6B)의 3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배관전체에 걸친 압송부하를 저감하고도 폐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배관의 거리를 가급적 짧게 하고 또한 굴곡을 가급적 적게 하도록 계획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과 치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직경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

하, 토출량, 단위시간당의 타설량, 폐색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압송능력은 펌프에 걸리는 최대압송부하보다도 크게 되도록 정해야 된다. 최대압송부하(P_{max})는 개주의 유이공사에 있어서의 실적 혹은 사전의 압송시험에 의하여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P_{max} = (\text{수평관 1m 당의 관내압력 손실}) \times (\text{수평환산거리})$$

수평관 1m 당의 표준적인 관내압력 손실은 그림 5.4.1에 도시한 바와 같으며, 조골재의 최대치수가 40mm의 경우에는 이 그림의 값에 대하여 10%의 할증을 한다. 또 각종 수송관의 수평환산길이는 표 5.4.2와 같다. 구해지는 최대압송각하 P_{max}가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이론토출압력의 80%이하가 되도록 기종을 선정한다.

표 5.4.1 압송하는 콘크리트 슬럼프의 표준범위

(콘크리트 타설위치에서의 슬럼프)

구조물의 종류		슬럼프(cm)	
매시브한 콘크리트(큰 교각, 큰 기초 등)		8~12	
비교적 매시브한 콘크리트(교각, 두꺼운 벽, 기초, 큰 아치 등)		10~15	
두꺼운 판		8~12	
일반의 철근콘크리트		12~18	
단면이 큰 철근콘크리트		8~1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보		10~15	
수밀콘크리트		8~15	
터널복공콘크리트		15~18	
경량골재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슬랩	12~18
		보	12~18
		벽 및 기둥	10~15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보		10~15	

전자금융사고 안당하려면

폰뱅킹 서비스 이용때는 보안카드 꼭 이용해야

최근 들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상의 범죄로 인하여 애써 모은 귀중한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재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금융사고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최근 폰뱅킹을 통해 고객의 예금이 불법으로 빠져나가고, 현금카드가 위조되는 등 전자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안전한 전자 금융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의 보안전문가들은 전자 금융사고를 100%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금융 소비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일일 이체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라 = 인터넷뱅킹·폰뱅킹 등 전자 금융 서비스 이용자는 일회 이체한도와 일일 이체한도를 자신의 거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만약 일일 이체 한도를 1000만원 정도로 설정했다면 최악의 경우 비밀번호가 누설되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이체한도를 거액으로 설정했다가 자신의 비밀번호가 누설되면 피해 액수가 커질 수 있다. 국민은행측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일이 거래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 서비스'에 등록해 두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말했다.

◆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라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PC를 사용하는 PC방에서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불가피하게 PC방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면 쿠키(cookie) 등 PC에 남아 있는 정보들을 지워야 한다. 폰뱅킹의 경우 자신이 누른 버튼을 액정 창에 표시해주는 전화기로는 절대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전자 금융 서비스를 처음 신청할 때 주위에서 신청서 내용을 보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여야 하며, 나중에 서비스

를 이용할 때도 메모지에 각종 암호나 비밀번호를 기록해서는 안된다. 암호나 비밀번호를 자기 집 전화번호, 생년월일, 자동차 번호판 등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번호로 설정하는 것도 위험하며 가끔 부정기적으로 암호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 암호 서비스를 꼭 이용하라 = 폰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은행에서 별도로 나눠준 보안카드를 꼭 이용해야 한다. 보안카드를 남에게 복사해주거나 보여주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다. 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암호생성기

등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행시켜야 한다. 또 전화로 은행원을 사칭하며 암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절대 내용을 가르쳐 주어서는 안된다. 이밖에 현금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뒤 전표나 CD 명세표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장단기 대책으로는

시행시기	대책내용
단기(2003년 6월까지)	- 보안성이 취약한 카드를 신형카드로 교체하거나 기존 카드에 암호난수 추가 입력, 사용 - 전자금융거래와 일반거래 비밀번호 분리, 운영 - 텔레뱅킹 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의무화 - 거액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시 별도의 비밀번호 추가 사용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 사고 조사 및 피해 보상기준 마련
중기(2003년 12월까지)	- 비밀번호 사전 기재방식에서 최초 거래시 사후 입력방식으로 변경 - 숫자조합방식에서 숫자 및 문자 혼합방식으로 비밀번호 체계 변경 - 고객이 비밀번호 직접 입력하는 핀패드방식 도입 - 특정거래가 카드회원의 신분 및 평소 사용행태와 다를 경우 승인 전 회원에 통보(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
장기(2004년 이후)	- IC카드 도입 - 카드가맹점 회원입회하에 카드사용 의무화 - 전자상거래시 카드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 - 지문, 홍채 인식시스템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방안 검토

생활정보

생활정보